

# 양돈 전산화의 걸림돌 (1)

이번 호부터 몇 회에 걸쳐 양돈전산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짚어보고 그 사례를 연재할 예정이다. 몇 년에 걸쳐 현장을 돌아다니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고, 희망도 가졌던 사례들을 연재함으로써 양돈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 볼 생각이다.

최영찬 교수  
서울대학교

이번 호에서는 양돈 전산화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양돈 전산화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걸림돌은 자신의 농장현황에 대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농장경영자의 폐쇄성과 농장주와 농장실무자간의 불신, 주먹구구식 농장경영이 대표적이다. 세가지 문제점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구분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밑에 세 농장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더 두드러지는 문제점에 대해 이 글을 읽는 농장주 및 농장 실무자, 양돈관련 종사자 스스로 자신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위의 문제들은 예부터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 농장경영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농장주와 농장실무자들의 서로에 대한 경계 및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더욱 크며,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농장의 현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는 판단에서 양돈 전산화가 더더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양돈이 다른 축산부분과 달리 현금유동성이 크고, 도박성이 강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를 작년 여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파주의 △△농장은 10여년 전 사양관리 및 경영관리를 수기록으로 해오다가 전산화에 눈을 뜨고, ▼▼사료회사의 양돈 전산프로그램 개발 모델이 되어 20여년 동안 기록해 온 모든 사양기록 및 농장 경영기록을 제공하였다. 당시 △△농장은 ▼▼사료회사의 사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규모가 당시로서는 상당했기 때문에 사료회사로써는 놓치고 싶지 않은 고객이기도 했다. 그

러나 사료의 특성상 가격과 품질 등이 농장에 맞지 않으면 바뀌는게 다반사인데, 이 사료회사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된 후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농장의 모든 사양·경영기록등을 세무서에 넘겨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다음의 예는 농장주와 농장 실무자 사이의 불신이 양돈 전산화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 〈사례2〉

발안의 □□농장은 모든 300여두의 규모로 농장 실무자는 모두 6명이다. 300두 규모 치고는 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장 사양관리

실패가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일주일에 걸쳐 현황을 조사한 바로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농장주에게 매주 보고되는 모든 기록들은 농장 현황과 거의 맞는 부분이 없으며, 심지어는 실무자들이 상태가 매우 양호한 우수 모돈들을 도살하여 식육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모돈의 개체번호, 이각 등이 온전치 못하고 개체기록부가 뒤섞여 도저히 구분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니 그 농장의 사정을 대충 짐작하리라 생각한다.



▲양돈 전산화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걸림돌은 자신의 농장현황에 대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농장 경영자의 폐쇄성과 농장주와 농장실무자간의 불신, 주먹구구식 농장경영이 대표적이다.

현황 파악이 모두 끝나고 농장주 및 실무자들에게 그간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새로이 전산화를 통한 농장관리 교육을 한달 여 동안 수행하였지만 약 2개월 후 농장주는 농장주대

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양돈 전산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상이해, 특히 실무자들은 농장주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 〈사례3〉

세 번째는 사양가들의 주먹구구식 농장경영이 전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전북지역의 ○○농장은 모든 100두 규모의 가족농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농장을 운영하는데, 이곳은 ●●사료회사의 소개로 방문하게 되었다.

도시 인접지역에서 양돈하는 농장들 사정이 다 그러하듯이 이곳도 개발에 밀려 변변한 돈사시설 하나 제대로 구비해 놓지 못하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양돈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법 교육을 하고 농장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농장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 농장의 사양관리 방법을 듣고는 아연실색해 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곳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개체 기록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으며, 그로 인해 불편하거나 농장운영이 마비가 되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사실 양돈 전산프로그램도 사료회사의 부탁도 있고, 남들이 하니깐 괜히 자신만 뒤쳐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게 농장주의 솔직한 답변이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법 교육을 끝마쳤다.

다음으로 농장현황 파악을 하는데 이는 양돈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 조사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현황이 농장주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없다고 봐야 할 정

도였다. 특히 돈사운영 및 사양관리에 가서는 놀랍다 못해 말을 잃게 만들었다. 돈사 구분은 아예 생각해 본적도 없었으며, 임신돈·포유돈·이유돈·후보돈에 대한 개체관리 없이 모두 한 곳에 몰아 넣고 교배하면 교배돈끼리 분만할 때까지 한곳에서 관리하며, 포유나 이유 역시 계획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구분하고 무조건 한곳에 몰아 넣어 눈에 보이는 대로 사육하는게 전부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도 정리해 본적 없는 농장주는 결국 기초조사를 포기하고 양돈 전산화가 사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며 정색을 하며 예전 방식대로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 농장도 전산화와는 요원하게 되었다.

위의 세가지 사례중 우리 농장은 몇 번째에 속하게 될까 생각하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가지 모두에서 우리 농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 농장 경쟁력 및 농장경영 정상화를 통한 고수익을 올리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양돈 전산프로그램이 위의 세 사례에 해당하는 농가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제는 양돈 전산 프로그램 없이는 농장경영이 불가능 하다는





농장의 사례를 들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 〈사례4〉

전북지역의 ◎◎농장은 작년 4월경 양돈 전산프로그램을 시작한 농가다. 모든 규모가 1,500여두로 농장과 관련된 사람은 중소기업을 방불케 할 정도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농장관리가 최대의 과제가 되었고, 농장주 및 농장장, 컨설턴트의 협의하에 전산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농장 실

년 모든의 회전율을 고려해서 6개월 이후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이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과 그 농장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10월을 마지막으로 그 농장에서의 연락은 없었다. 새해가 지난지 얼마 안되서 농장 전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컴퓨터 이상으로 전산프로그램 데이터가 손실되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이제는 이 프

로그램 없이는 농장경영이 어렵다'는 담당직원의 말에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게 6개월이 지난 후 농장현황과 전산프로그램이 정확히 맞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개월만에 다시 찾은 농장에서는 양돈 전산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이

컴퓨터 이상으로 전산프로그램 데이터가 손실되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이제는 이 프로그램 없이는 농장경영이 어렵다'는 담당직원의 말에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게 6개월이 지난 후 농장현황과 전산프로그램이 정확히 맞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자들에게는 이를 통해 인센티브 및 앞으로의 농장비전을 제시하기로 공표하였다. 전산 업무를 위해 담당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돈사 별로 팀을 만들어 사양관리 및 기록을 전담케 하고 2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컨설턴트와 팀장이 동석한 회의를 주재하였다.

전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농장주, 농장장, 실무자 및 전산담당 직원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내용은 실제 농장현황과 전산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6개월만 꾸준히 써보고 그때 가서 포기하라고 설득하였다. 근거는 다르게 아

를 통해 현장 실무자와 농장경영자간에 투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컨설턴트에게는 농장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어 사양관리, 농장관리, 경영관리 세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양돈 전산화의 모범 농장으로 손색이 없는 농장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9개월 동안 나와 부딪혔던 담당자와 그때 나누었던 대화로 글을 마치하고자 한다.

“보세요! 기다린 보람이 있지요? 양돈 전산화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끈기가 있어야 오늘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양돈**